

이번 주 시장을 읽는 하나의 문장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TSMC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끈 한 주, 유가·IBM 충격에도 AI 반도체 랠리는 꺾이지 않았다

이번 주는 BofA의 2026년 메모리 매출 4배 전망, ASML의 메모리 부문 75% 성장 상향, TSMC의 2분기 가이드نس 상단 돌파와 2나노 매출 개시가 연이어 나오며 AI 반도체·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가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6월 CPI 3.5%·PPI 하회로 금리 인하 기대가 재점화됐고 JP모건은 TSMC 목표가를 NT\$3,200으로 상향했으며 애플은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통행료 방침에 따른 유가 급등과 IBM 26% 폭락발 소프트웨어·IT서비스 충격이 리스크오프 요인으로 맞섰습니다.

Weekly Essay

장비에서 파운드리, 메모리까지: 슈퍼사이클이 밸류체인을 타고 번지는 법

이번 주는 BofA의 2026년 메모리 매출 4배 전망, ASML의 메모리 부문 75% 성장 상향, TSMC의 2분기 가이드نس 상단 돌파와 2나노 매출 개시가 연이어 나오며 AI 반도체·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가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6월 CPI 3.5%·PPI 하회로 금리 인하 기대가 재점화됐고 JP모건은 TSMC 목표가를 NT\$3,200으로 상향했으며 애플은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통행료 방침에 따른 유가 급등과 IBM 26% 폭락발 소프트웨어·IT서비스 충격이 리스크오프 요인으로 맞섰습니다.

이번 주 리포트는 데일리 리포트에 있었던 이슈를 다시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날 반복된 주제를 골라, 왜 시장이 그 뉴스에 반응했는지, 투자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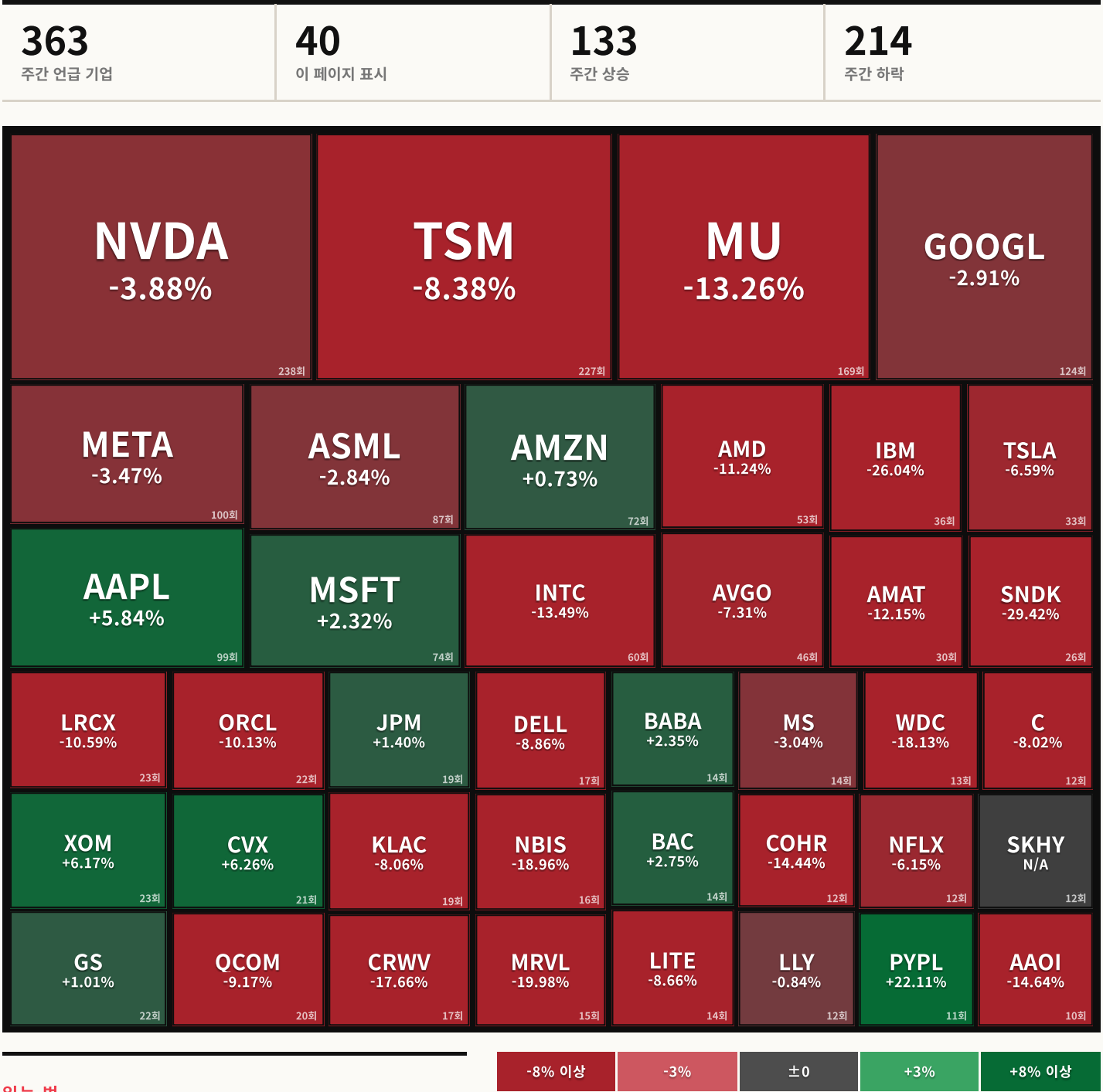
특히 주도 산업, 금리와 유가 같은 매크로 변수,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서로 연결되며 가격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리포트는 단순 뉴스 목록이 아니라, 다음 주 투자 판단에 바로 연결되는 해설지에 가깝게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 01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نس 상단 돌파
- 02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
- 03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HBM 공급부족 지속
- 04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
- 05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

Mention Map

이번 주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 40

한 주 동안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상위 40개 기업입니다. 위쪽일수록 언급 빈도가 높고, 칸 크기는 언급 빈도(제공된 스케일), 색상은 주간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Mover Map

주간 상승률·하락률 상위 20+20

상단은 주간 상승률 상위 20개, 하단은 주간 하락률 상위 20개 기업입니다. 칸 크기는 변동률 절대값에 비례합니다.

363 주간 언급 기업	40 이 페이지 표시	133 주간 상승	214 주간 하락
-----------------	----------------	--------------	--------------

▲ 상승률 상위 20

NXTC +207.69%		AGEN +48.89%		QTTB +34.82%
		ATAI +39.73%		
LCID +32.10%	DK +13.85%	CNMD +12.47%	AEHR +11.57%	RXO +11.52%
PYPL +22.11%	CTAS +13.81%	VLO +10.36%	NTSK +10.19%	XNCR +10.05%
SAIL +14.37%	FIG +13.36%	MPC +10.35%	PANW +10.07%	ROAD +10.02%
				PSX +9.83%

▼ 하락률 상위 20

KORU -96.72%		SNTI -57.65%		MTNB -53.37%	ENLV -31.58%
SOXL -29.70%	IBM -26.04%	RXT -22.38%	CIFR -20.61%	MRVL -19.98%	
SNDK -29.42%	CVKD -25.17%	CRDO -21.55%	AXTI -19.80%	CBRS -19.58%	
ALAB -26.52%	SPRO -24.76%	ASTS -21.16%	BTDR -19.36%	NBIS -18.96%	GLW -18.96%

읽는 법

색이 진할수록 주간 변동률이 큰 종목입니다. 초록은 주간 상승, 빨강은 주간 하락, 회색은 변동이 작거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입니다.

-8% 이상	-3%	±0	+3%	+8% 이상
--------	-----	----	-----	--------

Daily Three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봉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부과 방침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도체주 급락이 겹치며 뉴욕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매출이 4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메모리 3사와 HBM 밸류체인을 최대 수혜주로 지목했습니다. 유가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AI-메모리

01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14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2

에너지 · 비용과 인플레이션의 변수 · 경계

트럼프, 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통행료 20% 부과

에너지 리스크는 기업 이익률과 물가 기대를 동시에 건드린다. 그래서 단일 업종 뉴스처럼 보여도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바꿀 수 있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에너지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1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경계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유가가 다시 뛰는지, 운송·항공·소비재처럼 비용 민감 업종이 함께 흔들리는지 봐야 한다.

03

하드웨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메타, 하이퍼리온 데이터센터 500억달러로 증액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1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에너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 / 트럼프, 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통행료 20% 부과 / 메타, 하이퍼리온 데이터센터 500억달러로 증액」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져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HBM 공급부족 지속

6월 미국 CPI가 3.5%로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며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JP모건이 메모리 사이클 견조와 HBM 공급부족 지속을 짚으면서 반도체·메모리 밸류체인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만 IBM이 26% 폭락하며 소프트웨어·IT서비스 전반에 충격을 줬고, 미국의 이란 추가 타격과 호르무즈 해상봉쇄 개시로 유가 급등과 리스크오피



04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HBM 공급부족 지속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08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05

IBM 26% 폭락, SW·IT서비스 전반 충격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9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06

모건스탠리, 하이퍼스케일러 28년 Capex 1.4조달러 전망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9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HBM 공급부족 지속 / IBM 26% 폭락, SW·IT서비스 전반 충격 / 모건스탠리, 하이퍼스케일러 28년 Capex 1.4조달러 전망」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실적과 기대의 괴리를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아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Daily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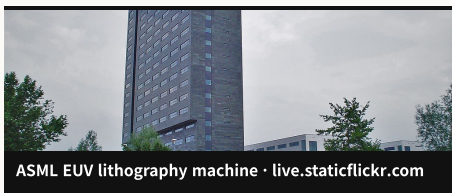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

ASML이 2026년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 메모리 부문 75% 증가를 제시하면서 AI발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 기대가 시장의 중심에 섰고, 엔비디아 NDR에서 확인된 강한 실적과 메모리 부족 장기화 전망이 이를 뒷받침했다. 매크로에서는 6월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재점화됐다. 반면 IBM이 25% 폭락하고 골드만이 소프트웨어 약세장을

07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일한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78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8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MS, 엔비디아 NDR 강한 실적·메모리 부족 장기화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일한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30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9

소프트웨어 · AI 플랫폼 자본 사이클 · 긍정

앤스로픽, 10월 IPO 추진...오픈AI보다 앞서

소프트웨어 이슈는 모델 경쟁보다 인프라 지출의 방향을 보여줄 때 시장 파급력이 커진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24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클라우드 CAPEX, 데이터센터 계약, AI 서비스 매출화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 / MS, 엔비디아 NDR 강한 실적·메모리 부족 장기화 / 앤스로픽, 10월 IPO 추진...오픈AI보다 앞서」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نس 상단 돌파

TSMC가 2분기 매출과 이익률 전 지표에서 가이드نس 상단을 돌파하고 2나노 매출을 개시하며 AI 파운드리 사이클의 지속을 확인시켰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ASML의 EUV 장비 수요 확대 전망도 부각됐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반도체를 넘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JP모건 등 월가 은행의 수수료·대출 수익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워런 버핏

10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نس 상단 돌파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41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중립

ASML, 메모리發 EUV 퍼펙트스톰 수혜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9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종목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12

금융 · 할인율의 압박 · 긍정

월가 은행, AI 슈퍼사이클로 수수료 호황

금리 뉴스는 성장주의 실적 기대를 직접 훼손하지 않아도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흔든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금융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8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다음 주에는 장기금리가 안정되는지, 성장주 반등이 금리 하락 없이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금융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길어로는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نس 상단 돌파 / ASML, 메모리發 EUV 퍼펙트스톰 수혜 / 월가 은행, AI 슈퍼사이클로 수수료 호황」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

오늘 시장은 반도체 섹터가 주도했습니다. JP모건이 TSMC 목표가를 NT\$3,200으로 상향하며 AI 수요의 장기 지속성이 부각됐고, 애플은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AI 지출 가속 신호가 우세한 가운데 메타가 앤스로픽에 100억달러 규모 컴퓨팅 임대를 협상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으나, IBM 실적 조기경고에 따른 주가 급락 등 개

13 · 반도체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55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14 · 소프트웨어

AI 수요 견조, 앤스로픽·AWS 우위 확인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9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15 · 하드웨어

애플, 엔비디아 제치고 시총 1위 탈환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5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 / AI 수요 견조, 앤스로픽·AWS 우위 확인 / 애플, 엔비디아 제치고 시총 1위 탈환」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호재와 확인 과제가 섞였고, 시장은 명확한 결론보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쪽에 가까웠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져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01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نس 상단 돌파

이번 주 시장이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نس 상단 돌파」에 반응한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바꾼 기대의 위치에 있다.



TSMC 2nm chip fab Taiwan · upload.wikimedia.org

이번 주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نس 상단 돌파」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41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드نس는 AI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TSMC가 2분기 매출과 이익률 전 지표에서 가이드نس 상단을 돌파하고 2나노 매출을 개시하며 AI 파운드리 사이클의 지속을 확인시켰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ASML의 EUV 장비 수요 확대 전망도 부각됐다. AI 인...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7-16 · 목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نس 상단 돌파 — TSMC가 2분기 매출과 이익률 전 지표에서 가이드نس 상단을 돌파하고 2나노 매출을 개시하며 AI 파운드리 사이클의 지속을 확인시켰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ASML의 EUV 장비 수요 확대 전망도 부각됐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반도체를 넘어 골드만삭스....

TSMC 2분기 실적 가이드스 상단 돌파

가격은 이미 얼마나 반영했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데이터센터 투자, HBM, 서버 부품, 전력 인프라까지 기대가 확산될 수 있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다만 이미 높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숫자가 좋아도 마진과 공급 제약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이후 공급망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가이드스 상향이 다른 기업으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가격 확인

- 1 호재 직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기대가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다.
- 2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거래량이 줄면 선반영 부담을 의심해야 한다.
- 3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이후 공급망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가이드스 상향이 다른 기업으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2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는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14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대형 증권사의 목표가 유지와 매수 의견은 엔비디아 강세 논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후행 확인이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봉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부과 방침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도체주 급락이 겹치며 뉴욕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매출이 4배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7-13 · 월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봉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부과 방침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도체주 급락이 겹치며 뉴욕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매출이 4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메모리 3사와...

BofA,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매출 4배 전망

다음 주 가능한 세 가지 경로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 축소보다 보유 명분을 강화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목표가 뉴스는 가격을 새로 만드는 재료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기대를 정당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목표가 상향이 실제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순 밸류에이션 재조정인지 구분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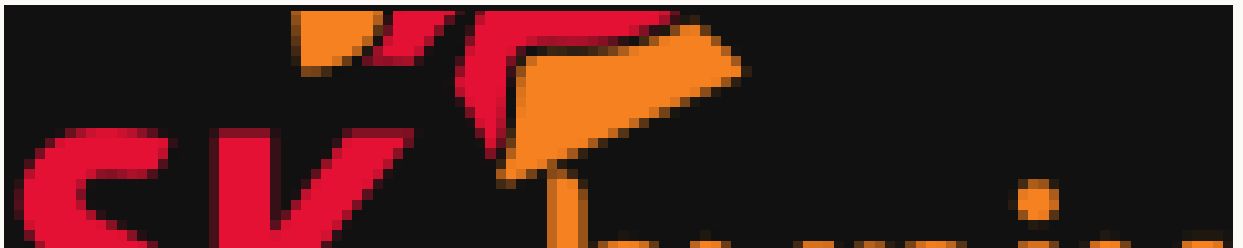
시나리오

- 1 강세 시나리오: 후속 가이드نس와 공급망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 2 중립 시나리오: 뉴스는 좋지만 주가는 박스권에서 소화 과정을 거친다.
- 3 약세 시나리오: 금리나 마진 부담이 커지며 밸류에이션이 먼저 눌린다.

03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 ·HBM 공급부족 지속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HBM 공급부족 지속」는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HBM 공급부족 지속」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08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불잡았다는 점이다.



SK Hynix HBM chip · upload.wikimedia.org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6월 미국 CPI가 3.5%로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며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JP모건이 메모리 사이클 견조와 HBM 공급부족 지속을 짚으면서 반도체·메모리 밸류체인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만 IBM…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7-14 · 화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HBM 공급부족 지속 — 6월 미국 CPI가 3.5%로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며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JP모건이 메모리 사이클 견조와 HBM 공급부족 지속을 짚으면서 반도체·메모리 밸류체인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만 IBM이 26% 폭락하며 소프트웨어·IT서비스 전반…

읽는 방식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순 호재가 아니라 다음 주 가격 반응을 확인해야 하는 관찰 대상이다.

JPM, 메모리 사이클 견조·HBM 공급부족 지속

목표가는 왜 움직였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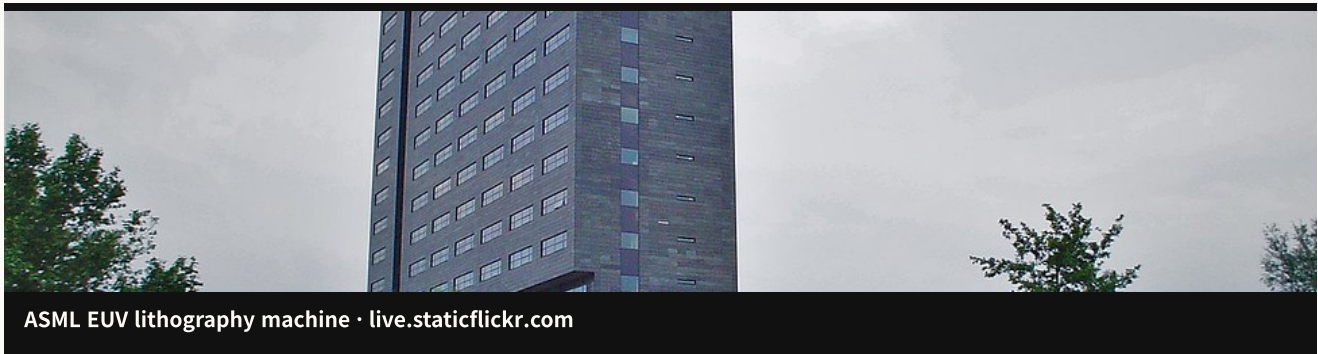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밸류에이션 점검

- 1 목표가 변화가 매출 추정 상향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단순 멀티플 재조정이면 지속성은 가격 반응에 달려 있다.
- 3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04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는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78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ASML이 2026년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 메모리 부문 75% 증가를 제시하면서 AI발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 기대가 시장의 중심에 섰고, 엔비디아 NDR에서 확인된 강한 실적과 메모리 부족 장기화 전망이 이를 뒷받침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7-15 · 수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 — ASML이 2026년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 메모리 부문 75% 증가를 제시하면서 AI발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 기대가 시장의 중심에 섰고, 엔비디아 NDR에서 확인된 강한 실적과 메모리 부족 장기화 전망이 이를 뒷받침했다. 매크로에서는 6월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ASML, 2026년 실적 전망 상향...메모리 75% ↑

실행력이 확인돼야 하는 지점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실행 확인

- 1 실제 공급, 고객 승인, 양산 일정이 뉴스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 2 수율과 마진 코멘트가 함께 좋아져야 주간 흐름이 이어진다.
- 3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05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

이번 주 시장이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에 반응한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바꾼 기대의 위치에 있다.

이번 주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55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의 기대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옮겨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섹터가 주도했습니다. JP모건이 TSMC 목표가를 NT\$3,200으로 상향하며 AI 수요의 장기 지속성이 부각됐고, 애플은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AI 지출 가속 신호가 우세한...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7-17 · 금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 — 오늘 시장은 반도체 섹터가 주도했습니다. JP모건이 TSMC 목표가를 NT\$3,200으로 상향하며 AI 수요의 장기 지속성이 부각됐고, 애플은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AI 지출 가속 신호가 우세한 가운데 메타가 엔스로픽에 100억달러 규모 컴...

JP모건, TSMC 목표가 NT\$3,200 상향

공급망은 어디까지 따라오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시장 전체로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확인이 필요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실적 코멘트, 목표가 조정, 주문·수요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공급망 확인

- 1 AI 서버 투자 확대가 HBM과 패키징 병목을 더 자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대형주뿐 아니라 후발 공급망까지 온기가 퍼지는지가 중요하다.
- 3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가 먼저 올라간 뒤 확인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Closing Essay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TSMC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끈 한 주, 유가·IBM 충격에도 AI 반도체 랠리는 꺾이지 않았다

이번 주는 BofA의 2026년 메모리 매출 4배 전망, ASML의 메모리 부문 75% 성장 상향, TSMC의 2분기 가이던스 상단 돌파와 2나노 매출 개시가 연이어 나오며 AI 반도체·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가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6월 CPI 3.5%·PPI 하회로 금리 인하 기대가 재점화됐고 JP모건은 TSMC 목표가를 NT\$3,200으로 상향했으며 애플은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통행료 방침에 따른 유가 급등과 IBM 26% 폭락발 소프트웨어·IT서비스 충격이 리스크오프 요인으로 맞섰습니다.

가장 반복된 주제 · TSMC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단 돌파 여러 날짜의 데일리 리포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슈입니다. 단기 뉴스보다 주간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산업 · 반도체 기사 수가 많다는 의미보다, 한 주 동안 투자자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영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체크 · 실적, 가이던스, 금리·유가 변수 이번 주에 형성된 기대가 다음 주 가격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부담 요인이 다시 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